

일제강점기 문학에 고지(告知)된 ‘철거명령’*

박 정 희**

[초 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도시계획에 따른 ‘빈민철거’ 문제에 대한 문학의 대응과 그 의미를 고찰했다. 1930년대 중후반 경성시가지계획의 확정과 그 추진은 이전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빈민철거를 야기했으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식민권력은 시가지의 확장과 도시정화를 통해 ‘대경성’을 구축하고자 토막민들에게 ‘철거명령장’을 고지했다. 법질서에 의한 철거명령은 토막민들을 추방과 배제를 통해 ‘벌거벗은 생명’으로 내몰았다. 토막민들은 ‘공식적 철거명령’에 저항해 ‘진정서’를 내거나 시위를 하지만 ‘토지 불법 점유자’인 까닭에 철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일제강점기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룬 문학 작품 가운데 ‘철거’ 문제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436).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주제어: 철거와 문학, 경성시가지계획, ‘철거명령’, 『불뚝』(1934), 『이 봄이 가기 전에』(1937), 『여름』(1940), 『群盲』(1940)
Demolition and Literature, Town Planning in Kyung-Seong, ‘Demolition Order’, *Spark* (1934), *Before This Spring is Over* (1937), *Summer* (1940), *Foolish People* (1940)

작품의 주제로 하거나 이 문제에 천착한 작품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작품들은 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대대적인 ‘빈민철거’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기 문학에 고지된 ‘철거명령’은 토막민들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고발이나 집단적 저항의 문제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토막촌에 고지된 ‘철거명령’의 상황을 지식인의 ‘이념철거’의 알레고리적 상황으로 형상화한 연상섭의 「불뚱」(1934)과 송영의 『이 봄이 가기 전에』(1937)는 이 시기 ‘철거명령’에 대한 문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여름」(1940)은 식민권력의 ‘병참기지로서의 도시 건설’과 ‘철거명령’이 결합된 폭력성의 맨얼굴을 징후적으로 포착하고 있으며, 「군맹」(1940)은 철거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물의 몰락을 통해 ‘벌거벗은 생명’의 출구 없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간 다루어진 바 없는 일제강점기의 문학과 철거의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다. 식민지 근대성이나 도시화의 보편적인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식민지 주거철거의 특수성을 문학의 차원에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철거와 문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도시계획시행에 따른 ‘빈민철거’의 문제에 대한 문학의 대응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문학 연구에서 하층민과 도시빈민의 가난, 궁핍, 빈궁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논의 지점을 찾기 힘들 만큼 오래된 것이며 방대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빈민철거’라는 주제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빈민철거’라는 주제가 역사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논의된 점을 고려할 때, 문학연구에서

이 주제에 천착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일제강점기의 빈민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된 주제이다.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의 기념비적인 연구자인 손정목의 연구¹⁾와 강만길의 연구²⁾가 도시빈민연구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도시 빈민층의 대표적인 유형인 토막과 토막민에 대한 연구로 김경일³⁾과 광건홍⁴⁾의 업적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일제시기 도시빈민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리-공간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만큼 도시화와 철거의 문제를 다룬 그간의 연구에서 일제강점기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철거민운동사 연구⁵⁾에서도 일제강점기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⁶⁾ 도시화와 철거의 문제에서 일제강점기가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가운데 염복규의 연구를 손꼽을 수 있다.⁷⁾ 염복규는 일제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의 관점으로 ‘서울의 탄생, 경성의 기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경성의 빈민철거 문제를 부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도시빈민과 ‘철거’문제에 대한 역사학, 사회학, 도시학 분야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학 분야에서 도시 경성을 주제로

-
- 1)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 2) 강만길(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 3) 김경일(1986),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사학회.
 - 4) 광건홍(1999), 「일제하의 빈민: 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 5) 김수현(1999),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서울학연구』 13, 서울학연구소.
 - 6) 도시화와 철거의 문제는 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근대도시화 논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송은영(2018), 『서울 탄생기』, 푸른역사.
 - 7) 염복규는 그의 박사논문(2009)을 최근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이데아, 2016)라는 단행본으로 간행했다. 본고의 일제말기 ‘철거’와 관련된 도시연구의 시각은 염복규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시사 받은 바가 크다는 점을 밝혀 놓는다.

한 연구는 경성의 ‘도심부’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문학텍스트를 대상으로 일상사, 풍속사, 문화론 등의 관점에서 식민지 근대성의 특성을 논구하여 이미 상당한 연구결과를 축적했다.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의 시각에서 일 본인 중심의 남촌과 조선인 중심의 북촌이라는 공간적 위계화(이중도시적 성격)와 그 경계 속에서 식민지인의 정체성 문제에 천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⁸⁾ 특히 이러한 연구는 도시 공간구획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이중어 글쓰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식민지인의 분열된 정체성 문제를 규명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근대성 연구에서 진일보한 성과에 값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식민지 지식인, 즉 엘리트층의 정체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학연구에서 식민지 경성의 ‘도심부’에 대한 연구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변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⁹⁾ 그 가운데 장성규¹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포, 아현, 청량리를 중심으로 소설에 나타난 ‘주변부’ 인식에 대해 고찰하면서 ‘빈민철거’ 주제에 논의한 바 있다. 장성규의 논의는 일제강점기 문학에서 ‘빈민철거’ 주제를 최초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빈민철거’ 문제를 ‘주변부’ 인식의 한 양상으로 살피면서 현덕의 「군맹」 한 작품에 국한해 고찰하는데 머물고 말았다. 아울러 본고는 송영의 『이 봄이 가기 전에』(1937)를 대상으로 도로망 건설에 따른 남산자락 일대의 ‘빈민철거’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¹¹⁾ 하지만 이들 연구는 해당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에서

8) 윤대석(2006),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14, 국어국문학회.

9) 정선태(2009), 「청량리 또는 ‘교외’와 ‘변두리’의 심상 공간」, 『서울학연구』 36, 서울학연구소; 이정숙(2014),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성북동, 낙산 일대의 형상화 고찰」, 『한성어문학』 33, 한성어문학회.

10) 장성규(2013), 「신체제기 소설의 ‘경성’ 형상화와 ‘주변부’ 인식」,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11) 본고는 송영의 장편소설 『이 봄이 가기 전에』에 대한 작품론 논문을 제출한 바

‘빈민철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근대문학연구에서 식민지 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빈민철거’라는 주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저간의 사정을 추측해보면 ‘빈민철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형상화한 문학작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사실, 식민지 시기 도시화에 따른 ‘빈민철거’ 문제는 신문 사회면의 빠지지 않는 기사였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그러나 당대 문학작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도 가능할 것인바,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 사항은 도시계획에 따른 대대적인 ‘빈민철거’라는 사회적 문제 발생 시점과 문단(작가)의 ‘검거 사건’ 및 ‘전향’ 이후라는 상황²⁾과 연관된 사항일 수 있다는 점만 우선 언급해두기로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는 지금까지 확인한 ‘빈민철거’를 작품의 주요한 사건이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빈민철거’에 대한 작가들의 대응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경성시가지계획과 그에 따른 ‘빈민철거’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성격과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있다. 해당 논문은 송영의 작가전기적 맥락에서 검거 사건 후 ‘집행유예 기간의 소설 쓰기’라는 관점으로 해당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라는 주제가 근대문학연구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을 발굴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 논문임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해당 논문의 후속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서 본문에서 논의하는 4작품 가운데 『이 봄이 가기 전에』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이전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본고의 목적에 맞게 수렴하였음을 밝혀둔다. 박정희(2017), 「제국의 ‘철거명령’과 식민지 ‘주의자’의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 28 (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12) 김동환은 ‘전향소설’의 내적 형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검거-출옥 후 ‘외적 강제력이 부과한 과제 수행’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기간의 소설 쓰기’라는 관점을 제안한 바 있다. 김동환(2014), 「법과 자기 검열」,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회.

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3장과 4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먼저 3장에서는 염상섭의 「불동」과 송영의 『이 봄이 가기 전에』를 대상으로 ‘빈민철거’의 문제를 ‘사상’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4장에서는 현덕의 「군맹」과 유진오의 「여름」을 대상으로 철거명령의 폭력성과 불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말기 토막촌에 고지된 ‘철거명령’에 대한 문학의 대응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1960년대 이후 도시화와 ‘철거’라는 문학사적 주제의 계보학적 기원을 밝히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경성시가지계획과 토막 철거

식민지 경성 도시화의 형성-변형-확장의 역사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는 빈민주거의 박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³⁾ 1934년 총독부의 근대적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 하나는 조선의 도시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구상의 차원이 아니라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대륙침략의 거점 조성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경성 도심부의 정비보다는 외곽지역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까지 식민권력의 도시계획 담론은 경성도시계획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조선‘도시계획’이었으나¹⁴⁾ 1932년 무렵부

13) 염복규(2004), 「식민지근대의 공간형성」,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pp. 197-219 참고

14)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 운동에 대해서는 김백영의 다음 글 참고 김백영(2009), 「식민지 도시계획의 정치사회학」, 『지배와 공간』, 문학과지성사, pp. 391-403 참고

터는 법령의 명칭에 ‘시가계획’이라 칭해지다가 1934년 6월 20일 정식 발표된 법령의 명칭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그러니까 법령의 명칭이 ‘도시’에서 ‘시가지’로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가지’의 의미가 식민권력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된 ‘거점으로서의 시가지’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명칭의 변화가 식민지 도시계획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염복규는 이 사항에 대해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에 따라 그 ‘거점’으로서의 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경성과 같은 기존 도시의 경우 무질서한 도시화를 통제하여 정책적 의도에 맞게 유도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한반도의 사항은 이 시기 일본 내지의 도시계획이 ‘확장된 도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성격의 맥락이 반영된 것이라고 논의했다.¹⁵⁾ 그 결과 그는 ‘시가지’라는 표현은 “식민지에 구현하고자 한 국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표현”¹⁶⁾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경성시가지계획은 ‘병참기지로써의 사망’을 수행하기 위한 식민권력의 도시계획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른 행정구역의 확장에는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도로망을 짜는 일이 급선무였다. 도시 전체를 권역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중심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도로를 배치하는데, 이러한 도로망이 일괄 고지된 것은 1936년 8월이었다.¹⁷⁾ 그 결과 1930년대 후반 이후 경성도시계획은 경성외곽지역의 도시편입과 기능의 분화를 위해 급격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외곽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의 확장은 토막에 대한 철거를 수반하게 되었다. 도로망 확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은 이전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철거’의 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빈민주거의 박탈문제를 야기했다. 이전까지 일종의 개발붐에 따른 개인토지

15) 염복규(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pp. 161-175.

16) 염복규(2016), p. 174.

17) 염복규(2004), p. 210.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그 규모도 크지 않았으나 1937년부터 가로망 부설과 구획정리공사가 시작되면서 철거의 범위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다.¹⁸⁾

오는 4월부터 경성부의 인접군부를 편입하여 대경성이 실현되기에 도회미관과 위생시설의 필요상 토막민 정리는 작년부터 계속 실행해 왔으나 이와는 정반대로 늘어가는 경향이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도 하등의 주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요즈음 와서는 경성부 편입과 함께 지가가 폭등하여 지주들이 가옥을 헐어버리려 하므로 자연히 주민과 지주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¹⁹⁾ (밑줄 강조-인용자)

토막은 도시 미관과 위생 그리고 무엇보다 식민권력의 도시계획과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의해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러한 토막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라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193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시기 신문사회면에는 철거 관련 신문 기사들이 넘쳐났고, 언론도 부청당국에 대해 빈민철거 문제에 대한 근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²⁰⁾

토막은 대부분 국유지나 사유지에 허가 없이 지어졌으므로 ‘무단 점거 정착지’(squatter settlements)이며 토막민은 토지 ‘무단’점유자(squatter)들이다. 당시 경성부는 토막민을 “‘하천 바닥, 혹은 임야 기타 관유지를 무단점거하고 거주하는 자’로 정의”²¹⁾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권력의 ‘철거 명령’(법 집행 앞에 ‘불법점유자’가 맞설 도리는 없다. 하지만 토막은 ‘집단’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대책 없는 강압적 ‘명령’은 집단적 저항에

18) 염복규(2016), p. 313.

19) 「적극정리도 무효, 토막민은 점증」, 『동아일보』, 1936.02.07.

20) 「세국민구제의 근본책」, 『동아일보』, 1938.12.23.

21)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엮음(2010), 박현숙 옮김,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p. 173.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시 ‘철거명령’을 고지 받은 토막민들이 부청에 진정(陳情)을 내고 집단 시위를 하는 등의 양상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리고 토막은 철거를 해도 또 다른 곳에 다시 형성되는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소관 관청과 토지 소유자의 두통의 근원”²³⁾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식민권력은 토막민을 ‘철거’의 대상인 동시에 도시 내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구성원으로 재인식하여 구획정리지구 내 ‘세민지구’를 설정하는 등의 도시빈민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 주거지와 세민지구로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식민통치의 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세민지구’ 설정계획과 실행은 전시 상황에 따른 구획정리공사의 지연과 재정적 압박으로 실현되지 못한다.²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1930년대 후반의 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빈민철거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철거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당대 4대신문 사회면의 철거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²⁵⁾ ‘撤去’는 ‘撤毀’, ‘退去’, ‘整理’ 등의 단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撤去命令’, ‘撤去令’, ‘最後 撤去 嚴命’, ‘強制 撤去令’, ‘總撤去’ 등의 어구로 많이 쓰였다. 그리고 철거명령이 고지된 대부분의 지역은, 개인의 사유지는 물론 부유지, 국유지를 막론하고 도시 내부와 특히 의

22) 대표적으로 1939년 돈암정 토막철거 사건을 들 수 있다. 「돈암정 토막부락 200호 강제철취: 다수한 남녀노유가 풍판노숙하게 된 정상을, 주민 대표가 府에 泣訴, 『매일신보』, 1939.07.06.

23)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엮음(2010), p. 174.

24) 이상의 경성부의 구획정리지구 내 ‘분산적 세민지구’ 설정 계획과 그 좌절에 대해서는 염복규(2016), pp. 319-329를 적극 참조하여 작성함.

25) 이 논문에서 사회과학적 통계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4대 민간지(『동아일보』, 『조선일조』,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아카이브에서 철거(철취, 퇴거), 토막(세구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한 후 추출한 신문기사들을 일별하고 기사문을 확인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논의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러한 철거 관련 4대 민간지의 기사편수는 1930년을 넘어서면서 20년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증가하고 특히 1936년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의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당시 신문의 관련 기사들에도 ‘土幕, 土幕民, 土幕村’ 등의 표현이 절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며 ‘家屋’, ‘貧民部落’, ‘빠락’, ‘細窮民’ 등이 구체적인 지역명과 함께 쓰였다. 따라서 ‘철거’보다 ‘철거명령’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그리고 그 강제성은 식민권력의 법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추방령’에 다름아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당대의 이러한 사회 현실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는 ‘철거명령’이 고지된 토막촌을 작품의 중요한 배경이나 사건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철거명령’의 다른 이름, ‘사상철거’

염상섭의 단편소설 1934년 『삼천리』 9월호에 발표된 「불똥」은 우리문학사에서 지금까지 확인되는 빈민철거 문제를 다룬 최초의 작품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작품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보다 문제적인 것은 염상섭이 이 작품을 통해 빈민철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²⁶⁾

이 작품의 배경은 서울 주변의 어느 바위산 일대의 토막촌이다. 해발 50미터 3천여 평의 바위산 상상봉 일대에 단칸방에 네다섯 식구가 들어사는 80여 가구가 있는 ‘신흥 토막촌’이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토막촌에 땅주인이 별장을 짓기 위해 ‘철거’를 고지하고 토막민들은 부청에

26) 염상섭의 「불똥」에 대한 언급은 김종균 교수가 거의 유일하다. 그는 “실화범으로 남의 비웃음만 사던 김관서댁 김학자님이란 아들이 잡혀가서 심문을 받고, 땅임자가 나타나 새 주택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의 전개는 마치 일제의 침략과 조선귀족의 몰락을 상징화한 듯하기도 하다.”(김종균(1978), 「염상섭의 1930년대 단편소설」, 『국어국문학』 77, 국어국문학회. p. 187)고 평가한 바 있다.

다 이주지를 요청해놓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불뚱」은 이러한 토막촌에 발생한 화재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방화범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을 ‘철거’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철거명령장’이 고지된 토막촌의 상황을 서술하는 작가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서술자는 토막촌과 토막민의 삶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토막민의 빈곤한 생활을 서술한 뒤에 “때일 것이 업서 걱정이지 때이면 뜻뜻하고 여름이면 내리질리고 치부는 선들바람에 피서가는 사람이 부럽지만케 누어서 척서가 된다.”²⁷⁾로 시작하여 토막촌의 ‘평화로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길게 이어진다. 토막민의 빈곤한 삶과 평화로움을 나란히 서술하고 있는 대목을 통해 염상섭의 토막민들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들은 여기의 팔십여호란 집이 일매진 것처럼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의복이나 엇더면 먹는 것까지라도 한 빗갈로 물드린 것처럼 일매지다고 할 수 있다. 일매지니 차별이 업고 고하가 업고 구분이 업다. 다만 구차라는 한빛으로 칠해리고 가난이란 한줄기로 엮어 매어서 모혀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비단옷이 업는 것과 가티 양반이라는 생각이 업다.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자랑할 아모 것이 업는 것과 가티 감추어야 할 아모 것도 업는 것이다. 누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조흔 집에 산다는 자랑도 업거니와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창피스럽다고 감추려는 생각은 업다. 그들에게 칭하가 잇다면 향당엔 막여치라는 로소관계밧게 업고 이것은 동시에 로인의 자랑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의 자랑은 오즉 자기의 힘뿐이다. 힘은 근강과 활동력이다. 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니 식구를 굶기지 안는다는 것이 한 자랑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누구나 똑 가튼 사람이요. 똑 가튼 근심을 함께 근심하고 잇는 것이다. 여기서

27) 염상섭(1934.09), 「불뚱」, 『삼천리』, 삼천리사, p. 260.

서로 동정이 생기고 우열이 업스니 싸흠이 업고 구차를 숨기지 안
흐니 의론성스럽게 서로서로 도읍는 것이다.²⁸⁾ (밑줄 강조-인용자)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술자는 토막민의 빈곤한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묘사하기보다 가난이라는 공통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토막민들의 구차와 가난이라는 공통점이 차별과 고하의식이 없고 상호 부끄러움 없는 동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자의 인식에는 도시빈민의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²⁹⁾로서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인용대목은 토막촌에 들어와 ‘과거의 자랑밖에 남은 것이라고는 없는’ 김판서댁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토막민의 삶을 대비적으로 서술할 뿐이다. 그리고 서술자는 아수라장이 된 화재 장면을 서술하는 가운데, 아무도 불을 끄려고 하지 않고 “그보다도 아무리 허접쓰러기가튼 세간이라도 그것부터 한가지라도 빼내는 것이 급하얏다.”고 토막민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뚱」의 서술자는 몰락한 양반에 대해서도, 토막민의 가난에 대해서도 상호 대비적인 효과만을 위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막촌의 화재(불) 사건을 통해 의미화하고자 한 서술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뚱」이 ‘철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불뚱」은 토막촌의 화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작품의 제목에서처럼, ‘불’(화재) 그 자체가 아니라 ‘불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막촌까지 밀려들어온 몰락한 양반 김판서댁에서 발생한 화재는 토막촌을 모두 태운다. 그런데 토막촌의 화재 사건은 엉뚱한 곳에 ‘불뚱’이 된다. 방화범

28) 염상섭(1934.09), p. 265.

29) M. 고트디너·레슬리 버드(2013), 남영호·채윤하 역, 『도시연구의 주요개념』, 라움, p. 221.

을 조사하는 과정에 김판서댁 아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작품 속에서 김판서댁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에서 ‘아들놈’, ‘더벅머리’, ‘더벅머리 청년’, ‘더벅머리 학자’ 등으로 지칭될 뿐 어떤 묘사도 없고 어떤 말연도 하지 않는 인물이 김청년이다. 그는 방화범 조사 과정에 경관의 한 마디 “자네가 여기 있다는 것은 좀 의외다.”라는 말과 조사가 끝난 후 경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징역까지 하고 나온 나쁜 사람”이지만 ‘방화범은 아니다’라는 말 속에서만 존재한다.

작품 속에서 김청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도 못하고 어떤 구체적인 형상도 없이 단지 ‘징역살고 나온 위험인물’이라는 정보만 주어져 있다. 이 정보를 통해 그가 ‘주의자’임을 암시할 뿐이다. 결국 ‘불뚱’은 토막춘에 기거하는 ‘주의자’에게 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뚱’은 ‘비합법활동자인 사회주의자’라는 비가시적 존재가 체포와 구금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가시성의 세계로 드러나게 되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자 재현 조건³⁰⁾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 토막춘에 고지된 ‘철거명령’을 화재사건으로 변주하여 이 시기 ‘주의자’의 존재방식을 ‘사상철거’ 상황으로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불뚱」이 그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염상섭 특유의 풍자적이고 거리두기의 방법으로 ‘사상’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다음에 살펴볼 송영의 『이 봄이 가기 전에』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송영의 『이 봄이 가기 전에』는 식민지 도시 빈민철거와 관련하여 철거명령에서부터 철거집행, 철거집행 이후의 토막민의 삶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지금까지 확인되는) 거의 유일한 장편소설이다.³¹⁾ 이

30) 이해령(2008),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 『대동문화연구』 64, 대동문화연구원.

31) 이하 송영의 『이 봄이 가기 전에』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제국의 ‘철거명령’과 식민지 ‘주의자’의 대응」(2017)에서 다룬 내용을 이 글의 주제와 맥락에 맞게 요약적으로 서술했음을 밝혀둔다. 해당 논문에서는 작가론적 맥락, 즉 검거 사건 후 전향시기의 ‘집행유예기간의 소설 쓰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했다면 이 글에서는 염상섭의 「불뚱」의 작가적 태도와 비교하기 위해 재맥락화하여 서술했다.

소설은 표면적으로 아학교 선생과 여학생의 연애관계를 기본축으로 백 만장자 아들이 이 연애를 방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연애서사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애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공간(남산자락의 세민촌)에 주목할 때, 이 작품은 1930년대 후반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도시 빈민철거 상황을 ‘사상철거’의 문제, 즉 ‘주의자’의 전향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1930년대 후반 이후 경성도시계획은 경성외곽지역의 도시편입과 기능의 분화를 위해 급격하게 진행된다. 그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가 남산주회도로의 부설이다. 1920년대 초 경성의 도시계획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제기된 남산주회도로는 1930년대 중반에 가서 실제 공사가 착수되고 1939년에 완공되었다.³²⁾ 『이 봄이 가기 전에』는 바로 이 남산주회도로의 부설이 야기하는 문제를 작품 속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미 이 무슨 일대에는 은행사택이니 문화주택이니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 신궁에서부터 장충단까지 통하는 남산주회도로가 생기는 까닭에 이 근처에다가 집터를 닦아 놓으면 반드시 큰 이가 생기리라는 타산 밑에서 이 땅을 사들였다. / 그리고 문화주택을 지어놓으려면 이 근처에 움집과 바라크들을 헐어버리지를 않으면 안 된다. 미관상(美觀上)으로 보든지 위생상(衛生上)으로 보든지 그보다도 더 값에도 영향이 많다고 해서 그같이 집을 헐어가라는 통지서를 발했던 것이다.³³⁾ (밑줄 강조-인용자)

남산주회도로의 부설 정보를 취한 오창희의 아버지는 ‘큰 이득’을 위해 주택회사를 설립하고 아들을 사장으로 앉힌 후 근처 땅을 매입한다. 세민촌은 ‘문화주택’ 예정지가 됨으로써, 그 속의 토막민들은 ‘토지 불법

32) 엄복규(2015), 「‘전원 도시’로 가는 길?」, 『도시연구』 13, 도시사학회, p. 62.

33) 송영(1937.04.07.), 『이 봄이 가기 전에(89회)』,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점거자’가 된다. 토막은 도시 미관과 위생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인정관계로 몇 푼씩 주어서 쫓아내는 예상이지 법률적으로 보아서는 노랑 한 푼인들 줄 필요가 없다’는 오창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토막민은 사유지이든 공유지이든 법률적으로 ‘불법점거자’일 뿐이다. 바야흐로 토막민은 식민권력과 토지소유자가 공유하는 ‘법률’이 발부한 ‘철거명령장’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토막촌에 ‘철거명령장’이 고지되고 토막민들은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장을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한다. 회사에서 제시한 새문 밖 흥제원 산판 이주지와 한 평에 3원이라는 이주비로는 도저히 집을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서를 써서 당국에다가 제출하고 한편으로 대표자를 뽑아 회사”와 “돈을 좀 더 달라고 최후로 교섭을 해”보자고 ‘저항’한다. 그러나 토지회사 측에 매수된 교장은 6원의 이주비로 타협하고 토막민들은 이 ‘철거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의 이사가 시작되고 철거가 집행되는 가운데 명심의 동생 명순이 혈린 집에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명심 어미의 “회사가 우리 원수다.”는 처절한 목소리만 있을 뿐 ‘철거’를 막을 수는 없다.

‘철거명령장’은 경성시가지계획의 한 사업인 남산주회도로의 부설과 그 정보를 이용한 개인사업자의 투기목적에 의해 세민촌에 발부된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품 속에서 ‘철거명령장’이 세민촌에 발부되는 시점이, 중심인물인 야학교사 서동산이 출옥하는 시점과 일치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야학교사 서동산은 세민촌에 발부된 ‘철거명령’에 어떤 대응도 못하고 있다. 다만 타락한 명심에 대한 책임감과 교사로서의 도덕적 차원에서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항변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사상운동에 가담했던 서동산은 출옥 후 ‘새로운 사회서적’은 읽지 않고 야학교사가 되어 그저 시종일관 ‘사상이 온건한 자’로서의 자기 삶을 살 뿐이었다. 이 전향의 삶은 세민촌의 야학교육으로

이러지고 있지만 ‘철거명령’ 앞에서 사회주의자의 성적 방종이라는 오해를 타계하기 위한 개인적 항변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철거명령’이 전향기를 사는 주의자에게 ‘사상철거’와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의자의 대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산자락에서 ‘철거’된 야학운동은 신설동 토막촌으로 공간을 옮기지만 신설동야학 또한 곧 검거되고 폐쇄되는 것으로 작품은 끝난다. 결국 이 작품은 그 ‘이동’조차 불가능해진 ‘검거’와 ‘폐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말기 전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제국이 식민지에 가한 ‘철거시대’의 징후를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핀 「불뚱」과 『이 봄이 가기 전에』를 통해 ‘철거문제’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주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소설은 도시화에 따른 빈민철거의 문제에 대해 ‘철거명령’의 부당함에는 공감하지만 철거민들의 ‘저항’이나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철거’의 상황만을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주의자’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른바 ‘극단 신건설 사건’으로 불리는 제2차 검거 사건(1934)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³⁴⁾ 체포와 구금의 시대,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의 소설쓰기’라는 상황의 맥락을 고려할 때, ‘철거명령’이 고지된 토막촌에 대한 형상화가 ‘사상철거’라는 인식에 기인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문학사에서 도시화에 따른 ‘빈민철거’의 문제를 다룬 초기의 작품들은 ‘사상철거’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철거’의 상황은 일제말기 전시동원체제로 수렴되는 도시계획의 실현과 맞물려 일소된다. 그리고 이 시기 ‘철거명령’은 이러한 목적과 상황에 걸맞게 더 강력한 폭력

34) ‘극단 신건설 사건’의 전모와 공판과정에 대해서는 권영민(2014),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346-410.

성의 맨얼굴을 드러낸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1940년에 발표된 두 작품을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4. ‘철거명령’의 맨얼굴: 폭력과 불안

1940년 2월부터 한 달 남짓 연재를 한 현덕의 중편소설 「군맹」³⁵⁾은 낙산 일대 창신정³⁶⁾의 토막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경성시 가지계획의 구획상 이른바 청량리구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당시 재개발 과정의 한복판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군맹」은 ‘철거명령’이 고지된 창신정 토막촌을 배경으로 그 상황에 대응하는 한 인간상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토막촌의 빈곤한 삶에 대한 형상화와 ‘철거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철거명령’이 고지된 토막촌 속에 존재하는 한 인물의 삶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맹」은 토막촌에 고지된 ‘철거명령’이 야기한 사건과 젊은 여성의 인신매매 사건이 서사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돈 앞에 정이고 의리’ 따위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의 소유자인 만성이 주인공이다. 토막촌의 땅주인인 김권실의 땅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철거명령’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에만 골몰한다. 이러한 그의 집요한 노력은 인신매매이다. 토막촌의 가난한 집안의 딸이자 자기 동생의 애인인 여성을 만주 색주가로 팔기 위해 여성의 부모를 집요하게 설득하여 결국 계약에 성공한다. 한때 자신이 연모한 여성이기도

35) 현덕, 「군맹」, 『매일신보』, 1940.02.24.~03.29.(총 28회).

36) 1936년 5월 『매일신보』의 「豪華京城・土窟悲話」라는 기획보도에서 동대문 밖 창신정은 ‘다 같이 府內이건만 판 세상인 암흑세계, 전기가 안 들어와 산간과 같아’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매일신보』, 1936.06.05.).

하지만 ‘돈 앞에 정이고 의리’ 따위는 불순물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좇는 삶을 추구하는 만성이라는 인물의 형상화를 위해 다른 등장인물들은 주변화 되어 있다. ‘철거명령’을 마주한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고지한 땅주인 김권실조차 만성 앞에서는 세상물정 모르는 ‘꿈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려질 뿐이다. 땅주인 김권실은 마을 사람들조차 알고 있는 ‘땅 임자가 제 땅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겠나’는 인식에도 못 미치는 인물이다. 토막민들에게 이주비와 이주지를 제시하면서 ‘의무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말도 한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이 ‘부유지의 경우 길을 내기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주지는 물론 후한 이주비와 구루마까지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라고 땅주인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물로 그려진다. 한편 철거명령에 대해 토막민들은 회의사를 중심으로 ‘진정서’로 대응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방법이 ‘사정을 아낄 뿐 별것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듯 「군맹」은 ‘철거’라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만성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한편 만성이라는 인물의 대척점에 동생 만수가 존재한다. 그는 할 일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과 사진관에 모여 한담을 소일로 하는 인물이다. 그의 형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거명령’의 상황에 대해서도 토막탈출의 기회정도로 여길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애인이 만주로 팔려갈 상황에 놓였지만 ‘토막굴에서 자란 여자의 말로’라며 빈정거릴 뿐이다. 게다가 ‘늠름한 체수에 쓰이지 못한 채 남은 힘을 제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는, 누구에게 잔뜩 얻어맞고 싶다는 가학적인 자기파괴의 충동에 시달리는 인물로만 그려진다. 소설의 결말부분에서 애인과 함께 계약금을 가지고 만주로 도망친다. 하지만 이는 형 만성의 삶을 부정하는 어떤 전망의 가능성을 담고 있거나 ‘철거명령’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포함하기에는 역부족인 충동적인 행위로 그칠 뿐이다.

이러한 인물의 관계 속에서 만성의 성격 부각에만 집중되어 있는 서사의 전개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군맹」에 두 번이나 삽입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최의사 집에 모인 마을사람들은 최의사가 들려주는 ‘여의주를 삼킨 구미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서로 토론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맨 마지막 대목에서 ‘철거명령’에 대한 대응책으로 ‘진정서’를 꾸린 뒤 마을사람들은 최의사 집 앞마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또 한 번 삽입되어 있다.

밤 어둠에 잠기어 거뭇한 만수산 머리에는 몇 개의 별이 멀고 동네는 한 마리 짐승처럼 침잠한 빛으로 희끄무레 연한 양철 지붕 밑에 주체하지 못할 불안과 상을 찌푸린 악心に 잠기어 납작하다. 한 가닥의 엷은 생명처럼 간간이 창마다 약한 불빛이 희미하고, 그와 대비를 만들듯 저 건너편으로 내려다보이는 성 안 거리에는 무수한 불빛이 찬란한 꿈처럼 길게 연했다. 그 찬란한 꿈에서 쫓기어난 사람들처럼 무한한 거리를 두고 최의사 집 앞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중계중계 모여 혹은 깎지를 끼어 무릎을 싸고 앉아서 거리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다. / 각자 그들은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할 불안과 초조를 안은 채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잊으려 하고 흐리려 하는 것이리라. 자기가 실제 겪거나 한 것처럼 억양을 붙여 가며 하는 첫날밤에 호랑이에게 남편을 물려 보내고 과부가 된 여자가 자살을 하려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인연으로 가난한 홀애비가 그 여자와 장가도 들고 처갓집 덕에 벼슬도 하였다는 얘기, 고향서 산돼지 사냥을 하다가 불을 맞은 돼지가 덤벼드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넘기었다는 전일 포수였던 자가 하는 경험담, 꿈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 인도해 가서 가리킨 장소에서 금줄을 얻게 되었다는 엉뚱한 성공담, 아무 근심 없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에 재미있는 듯 귀를 기울여 듣고 하다가는 한사람 한사람 그치고 좌우가 조용해지자 그들은 배전의 공허와 불안이 엄습하는 모양이다.³⁷⁾ (밑줄 강조-인용자)

37) 현덕, 「군맹」(28회-최종회), 『매일신보』, 1940.03.29.

토막촌에서 마을사람들이 최의사의 집에 모여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철거명령’이 고지된 상황 후에 그 일상은 깨어지고 만다. 소설의 전반부에 삽입된 장면에서 마을사람들은 최의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웃을 수’ 없고 ‘가만히 있지 못할 불안’에 직면해 있다. ‘철거명령’이 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불안’은 위 인용문에서처럼 작품 마지막 대목에서 더 가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사람들은 ‘진정서’를 보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엄습해 있는 ‘불안’은 ‘성 안의 불빛’과 대비된 ‘밤 어둠’ 속에서 더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불안은 대상이 없는 두려운 상태, 즉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쉽게 말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무엇이 불안을 유발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³⁸⁾ 예고된 ‘철거명령’이 토막민들에게 이 불안을 야기한 원인이다. 토막민들은 자신들의 ‘뒤틀리지 못한 위치’³⁹⁾, 즉 남의 소유지에 허가 없이 집을 지은 ‘불법점유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철거명령’이라는 법 집행의 위력 앞에 그들의 ‘진정서’가 힘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매매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만으로 토막촌은 장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불안’은 일상적으로 토막민들이 최의사의 집에 모여 ‘이야기’를 공유하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과 환상의 관계에 대한 살레츨의 논의에 따르면, 환상은 주체가 자신에게 일관성을 제공해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결여를 덮는 방법이며, 환상은 주체가 불안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⁴⁰⁾ 서술자가 토막민들에게 있어 ‘이야기’의 의미를 “불안과

38) 맹정현(2009), 「불안과 불안의 운명」, 『문학과사회』 22(1), 문학과지성사, p. 410; 레나타 살레츨(2015), 박광호 옮김, 『불안들』, 후마니타스, pp. 44-45.

39) 현덕, 「군맹」(12회), 『매일신보』, 1940.03.07.

40) 레나타 살레츨(2015), p. 53.

초조를 안은 채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잊으려 하고 흐리려 하는 것 이리라.”라고 쓰고 있듯이, 토막민들에게 ‘옛날이야기’, ‘경험담’, ‘성공담’ 등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일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삶의 중요한 방식이다. 하지만 ‘철거명령’은 그들에게서 ‘이야기’가 가진 빈곤한 삶을 지탱해주던 힘을 박탈한다. 이런 상황에서 토막살이의 탈출을 감행한 만수와 민숙의 ‘만주행’⁴¹⁾은 ‘철거명령’에 대한 저항으로서 혹은 전망으로서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좀 더 자기 앞에 가로막힌 캄캄한 어둠을 자각하였다”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그들의 탈출은 “캄캄한 어둠”을 직면하는 것일 뿐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철거명령’을 통해 토막민들의 불안과 그들이 직면한 출구 없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고된 ‘철거명령’은 머지않아 그 맨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그 맨얼굴은 유진오의 「여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맹」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 유진오의 「여름」⁴²⁾의 공간적 배경은 경

41) 당시 토막민의 ‘장래의 희망 및 계획’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농촌출신 입에도 불구하고 귀농 또는 만주이민을 바라는 자가 의외로 적은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아마도 그 현실성이 적기 때문”(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2010, p. 217)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보고를 참고할 때, 당시 토막민들에게 ‘만주’는, 「군맹」에서 만성이 ‘새로 발견된 도회로 물자 많고 돈 흔하고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이며 빈손으로 가서 몇 해 안에 부자가 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의 비현실성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2) 유진오의 「夏」는 『문예』(1940.07)에 일본어로 발표된 소설이다. 일본인 독자를 대상으로 쓴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본인 독자들에게 조선 하층민의 삶을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작품은 ‘그때까지 유진오 문학과는 크게 달라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독특한 세계를 그리고 있는 작품’(정호웅(2006), 「유진오론」,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p. 330)이라는 평가가 말해주듯이 유진오의 문학세계에서도 이질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이중어 글쓰기’의 차원 혹은 작가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빈민철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은 윤대석의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유진오(2011), 「여름」, 『김강사와 T교수』(윤대석 엮음), 현대문학.

성 외곽 개천가 모래언덕 토막부락이다. 주인공 윤복동이 동대문을 드나들며 금붕어 장사, 꽃 장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동대문 밖 신설정일 가능성이 높다.⁴³⁾ 이곳에 야밤을 이용해 청부업자들이 토막을 짓고 있는 첫 장면이 이어진 뒤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갈무리를 한다.

발각되면 끝장이었다. 누구 땅인지는 모른다. 아마 국유지일 터이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땅이다. 그러기에 한밤중을 기다려 일을 시작했던 것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마치기 위해 우습지만 청부업자 같은 전문가도 생겨났다.

토막은 불치의 피부병처럼 이 도시 외곽에 기생하고 있었다. 10년 전 삼십 몇 만이라 했던 이 도시의 인구는 오륙 년 전에는 벌써 칠십만을 돌파하였고, ‘대륙병참기지’의 심장부라 불리우고부터는 더욱 가속도로 팽창해갔다. 원대한 도시계획안이 수립되어 대규모의 구획정리가 시작되었으나 거기에 보조를 맞추듯 가는 곳마다 공터에는 토막 부락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구획 정리의 손길이 뻗침에 따라 불결한 이들 부락은 곧 철폐되었지만, 부수고 또 부수어도, 그 뒤에 또 그 뒤에 새로운 토막 부락이 생겨났던 것이다.⁴⁴⁾ (밀줄 강조-인용자)

우선 토막에 대한 서술에서 주목할 것은 원대한 도시계획안에 따른 대규모의 구획정리로 인한 토막 철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도시는 ‘대륙병참기지의 심장부’라는 점이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43) 1936년 5월 『매일신보』에서 「豪華京城·土窟悲話」라는 기획으로 경성 주변부의 9군데의 토막촌의 생활실태를 탐방 취재하여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동대문 밖 신설정에는 모래밭 개천가 뚝방을 따라 697호의 토막에 3천여 명의 토막민이 거주하는 토막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 시골농촌 태생으로 ‘시골에서는 살 수 없어 서울로 찾아왔으나 벌이가 없고 집세가 비싸 성 밖으로 나오게 되어 한두 사람씩 들어왔기 시작하여 형성된 토막촌’(『매일신보』, 1936.06.01)이 신설동 개천가 토막부락이다.

44) 유진오(1940, 2011), p. 415.

대륙침략의 거점으로서 경성 조성의 필요성에 따른 외곽지역 확장을 위한 시가지계획과 이에 따른 구획정리는 ‘불결’이라는 도시위생담론을 이유로 빈민주거를 철거하지만 ‘불치의 피부병’처럼 “부수고 또 부수어도 그 뒤에 또 그 뒤에 새로운 토막 부락”이 생겨날 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토막을 짓고 있는 땅이 국유지라는 점이다. 그래서 “발각되면 끝장이다.” 청부업자들은 칼 찬 ‘순사’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야밤을 틈타 공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그 토막은 어찌 되는가? “순사도 어찌해볼 수 없어 잠시 노성을 질렀을 뿐 칼 소리를 울리며 돌아가고” 만다. 그러니까 토막부락은 제국의 식민지 지배 체제 속에서 어찌해볼 수 없는 ‘불치의 피부병’이다. 그것은 피식민지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토막촌에서 윤복동이 밥벌이로 하는 일은 구획정리 공사장 인부이다. 민둥산을 깎아 그 흙으로 폭 25미터의 도로를 만드는 공사인데, 그 “공사가 진척되면 결국 복동이네가 살고 있는 토막 부락은 다시 어디론가 옮겨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다. “아이러니였지만 어쩔 수 없는”⁴⁵⁾ 피식민지 토막민의 삶인 것이다. 결국 식민권력에게도 토막의 강제철거는 또 다른 곳으로의 이동만 낳을 뿐이므로 토막은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소설의 흥미로운 부분은 토막부락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것이다. ‘순사’도 어쩔 수 없는, 순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이 토막부락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질서유지자는 정백만이다. 그는 강력한 육체적인 힘을 소유하고 뱀 장수의 우두머리이자 청부업에 고리대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대갓집들”이 사라진 상황과 대비하여 현재의 토막부락에서 정백만은, “윗분들의 눈”보다 더 냉혹하게 “동네의 규칙”을 따르게 하면서 부락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에게 부락의 여자들은 소유와 정복의 대상이 된다. 정백만은 윤복동의 아내와 시골출신 젊은 부

45) 유진오(1940, 2011), p. 419.

부의 아내를 빼앗고 정복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 윤복동은 아내의 바람기를 인정하더라도 정백만에게 대적할 수 없어 참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기가 없는 사람” 윤복동은 젊은 부부의 아내가 겁탈 당하는 순간에 참지 못한다. “논리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걱정. 오직 한 생각, 정백만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무서운 증오의 불꽃”⁴⁶⁾이 일어난 윤복만은 정백만과 목숨을 건 난투극 끝에 정백만에게 살해당한다.

그런데 「여름」에서 여름에 벌어진 이 살인사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걱정’으로서의 저항이라는 맥락으로 이 소설을 읽는 것은 초기 근대문학사에서 이른바 신경향파 소설의 살인과 방화 같은 자연발생적 ‘걱정’을 확인하는, 즉 시효성 지난 문학사의 과거유품을 재확인하는 것에 머무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 에필로그 식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는 서술은 주목을 요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벌써 오래된 이야기다. 그 무렵은 구획 정리의 손길이 아직 콘크리트 다리에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지만, 팔월이 끝날 무렵에는 이 토막 부락도 흔적 없이 철거되고 말았다. 첫서리가 내릴 무렵에는 벌써 공사도 대충 끝나 강둑 양쪽에 저 멀리 하류까지 일직선으로 하얀 석축이 쌓아졌다. 그리고 새롭게 주택도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있었다. 다섯 달 전의 그 비참한 활극은 누군가의 악몽이었던가.⁴⁷⁾ (밑줄 강조-인용자)

「여름」은 5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술자가 들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이다. 서술자는 살인사건 이후 토막부락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하얀 석축이 일직선으로 쌓였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고 보

46) 유진오(1940, 2011), p. 433.

47) 유진오(1940, 2011), p. 435.

고하는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토막부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일직선” 하얀 석축에 주목해보면, ‘일직선 하얀 석축’은 ‘불결’하고 무질서한 토막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아울러 윤복동을 살해한 후 “피가 뚝뚝 흐르는 낮을 태양을 향해 치켜들고는 야수처럼 소리를 지르는”⁴⁸⁾ 정백만의 모습과 ‘하얀 석축의 일직선’이 또한 대비를 이룬다. 앞서 살펴봤듯이 토막촌은 ‘순사의 눈’보다 더 냉혹한 정백만이 지배하는 ‘동네의 규칙’, 즉 야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 ‘야수의 표정’은 일제말기 전시동원체제 제국권력의 폭력성을 환기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일직선’은 식민지 조선의 대륙병참기지 거점 수행을 위한 시공간의 재구축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폭력과 살인으로 점철된 토막부락은 ‘일직선’에 의해 빈틈없이 철저히 ‘철거’되고 그 자리에 ‘하얀 석축’이 가리키는 방향만 남았다. 그리고 이 ‘방향’은 도시 빈민철거의 문제를 넘어 전시기의 총동원체제에서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은 어떻게 재구축되며 그 실체는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⁹⁾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낮을 들고 야수의 모습을 한 정백수는 전시동원체제의 맨얼굴에 해당하는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철거’는 추방에 의한 뿌리 뽑힘을 의미한다. 아감벤이 ‘주권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명명한 ‘추방령’의 개념에 따를 때 ‘철거명령장’은 “공동

48) 유진오(1940, 2011), p. 435.

49) 이 작품의 마지막 대목을 두고 김윤식은 “무심한 자연질서 속에 살고 있는 덧없는 인생들이 이로써 거꾸로 날카롭게 부감됨과 동시에 ‘병참기지’로서의 식민지적 현실이 보다 선연히 떠올랐다.”(김윤식(2001),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 양상 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 76.)고 평한 바 있다.

체로부터의 배제라는 뜻과 아울러 주권자의 명령 및 상징 깃발⁵⁰⁾이라는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감벤은 “포함함으로써 배제하는 추방의 양가성⁵¹⁾에 입각해 법적으로 구속되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은 법질서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질서 속에 갇혀 있는 역설적인 존재라고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오직 배제만을 통해서 끌어안는 형태의 관계를 ‘예외관계’라고 하며 법과 호모 사케르의 관계가 바로 예외관계라고 한다. 아감벤의 이런 논의를 따를 때, 도시 철거민은 공동체 안과 밖의 미결정 영역에 놓인 ‘예외자로서 호모 사케르’라는 존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번 이런 부락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합리적 존재이기는 해도 쉽게 옮기기 어려운 끈질긴 존재”, “관사(官私)가 끈질기게 내쫓고 위협에 의해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해도 그곳에는 또 다시 토막이 만들어져 얼마 안가서 이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⁵²⁾ 존재인 토막촌은, 법질서의 외부에 있으면서 내부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골칫덩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호모 사케르적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골칫덩이’는 식민권력의 식민지 도시빈민과 그 주거공간의 문제에 대한 ‘포함함으로써 배제함’이라는 통치전략의 작동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존재에 해당한다. 토막민은 권력의 외부로 추방당한 존재이지만 존재 자체가 법질서의 내부를 다시 변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서나 존재 가능한 호모 사케르(철거민)를 곧바로 일제 식민지시기에 대입하는 것은 선부른 일반화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반화는 역사적 맥락을 괄호 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식민제국은 ‘토막’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토막민의 불법 주거를 묵인하고 징세까지 했다. 그

50) 아감벤(2008),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p. 79.

51) 아감벤(2008), p. 164.

52)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엮음(2010), p. 174.

러니까 어느 시기까지이긴 하지만 토막민은 “어떠한 구제적 시해도 받지 못했지만 반대로 적극적 취제도 당하지 않는 이중적 의미에서의 권력의 무관심 혹은 무통제 상태에 놓여 있었”⁵³⁾다. 그리고 이후 제국은 빈민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세민지구 설정 등 ‘제도적 보호’를 시행하여 토막을 관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식민제국의 ‘토막’ 관리는 전시동원체제의 통치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허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실패로 끝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식민지 시기 ‘토막’은 “순사도 어찌해볼 수 없어 잠시 노성을 질렀을 뿐 칼 소리를 울리며 돌아가”게 만드는 존재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토막’이 갖는 그 규모의 집단성과 ‘이동성’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라. 일제강점기 문학과 철거의 문제, 그리고 ‘호모 사케르’와 ‘예외상태’ 등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속에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빈민철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에 주목했다. 이들 작품은 ‘철거문제’를 다룬 문학들에 대해 흔히 기대할 수 있는 ‘철거명령’의 부당함을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토막민들의 ‘저항’ 혹은 전망의 가능성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30년대의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른 ‘빈민철거’의 상황은 「불뚱」에서 체포와 검거의 순간에야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주의자’의 존재조건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거나 『이 봄이 가기 전에』에서 ‘사상철거’의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문학사에서 도시 ‘빈민철거’에 대한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향문학’이라는 문학사적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가지계획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발표된 「여름」과 「군맹」을 통해 일제말기 전시총동원체제기 식민권력의 도시계획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폭력성과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 염복규(2016), p. 307.

그간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철거’와 ‘철거민’이라는 주제는 1960년대 이후, 특히 광주대단지 주민항거(1971)를 다룬 작품과 최근의 용산참사를 다룬 작품들에 국한해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문학과 철거라는 문제에 천착한 소설들을 대상으로 그간 식민지 근대성과 도시화의 보편적인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식민지 주거철거의 특수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고의 논의를 통해 우리문학사에서 철거와 문학에 대한 그 계보학적 기원의 탐색과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양상도 고려하여 더 많은 작품 발굴과 논의를 축적하여 우리문학사에 ‘작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철거문학사’⁵⁴⁾를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4) 이 표현은 1960년대 이후의 문학작품들을 대상으로 ‘도시 철거민’의 문제를 논의한 연구자가 쓴 글의 제목을 빌려 쓴 것임을 밝혀둔다. 송은영(2013), 「추방당한 삶의 기록들: 도시 철거민을 위한 아주 작은 문학사」, 『실천문학』 109, 실천문학사, p. 90.

참고문헌

【자 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송영(1937.01-06), 『이 봄이 가기 전에』(총 159회),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염상섭(1934.09), 「불똥」, 『삼천리』, 삼천리사.
유진오(1940.07), 「夏」, 『문예』, 문예사.
_____(2011), 「여름」, 『김강사와 T교수』(윤대석 번역), 현대문학.
현덕(1940.02.-03), 「군맹」(총 28회),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논 저】

- 강만길(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엮음(2010), 박현숙 옮김,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곽건홍(1999), 「일제하의 빈민: 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pp. 162-173.
권영민(2014),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경일(1986),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사학회, pp. 203-257.
김동환(2014), 「법과 자기 검열: 치안유지법과 전향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한국현대문학회, pp. 41-46.
김백영(2009), 『지배와 공간』, 문학과지성사.
김수현(1999),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서울학연구』 13, 서울학연구소, pp. 213-243.
김윤식(2001),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 양상 신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종균(1978), 「염상섭의 1930년대 단편소설」, 『국어국문학』 77, 국어국문학회, pp. 175-195.
레나타 살레츨(2015), 박광호 옮김, 『불안들』, 후마니타스.
맹정현(2009), 「불안과 불안의 운명」, 『문학과사회』 22(1), 문학과지성사, pp. 410-427.

- 박정희(2017), 「제국의 ‘철거명령’과 식민지 ‘주의자’의 대응: 송영 장편소설 『이 봄이 가기 전에』(1937)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8(3), 인문과학연구소, pp. 13-42.
- 손종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 송은영(2018), 『서울 탄생기: 1960~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 푸른역사.
- _____(2013), 「추방당한 삶의 기록들: 도시 철거민을 위한 아주 작은 문학사」, 『실천문학』 109, 실천문학사, pp. 90-102.
- 아감벤(2008),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 염복규(2004), 「식민지근대의 공간형성 — 근대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형성, 변용, 확장」,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pp. 197-219.
- _____(2015), 「‘전원 도시’로 가는 길?: 식민지시기 경성 ‘남산주회도로’의 부설 과정과 의미」, 『도시연구』 13, 도시사학회, pp. 61-85.
- _____(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이데아.
- 윤대석(2006),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14, 국어국문학회, pp. 91-112.
- 이정숙(2014),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성북동, 낙산 일대의 형상화 고찰」, 『한성어문학』 33, 한성어문학회, pp. 61-86.
- 이혜령(2008), 「감옥 혹은 부재의 시간들 —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재현한다는 것, 그 가능성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64, 대동문화연구원, pp. 71-118.
- 장성규(2013), 「신체제기 소설의 ‘경성’ 형상화와 ‘주변부’ 인식」,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pp. 111-141.
- 정선태(2009), 「청량리 또는 ‘교외’와 ‘변두리’의 심상 공간: 한국 근대문학이 재현한 동대문 밖과 청량리 근처」, 『서울학연구』 36, 서울학연구소, pp. 77-99.
- 정호웅(2006), 「유진오론」,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pp. 313-335.

원고 접수일: 2019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9년 2월 9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9일

ABSTRACT

‘Demolition Order’ Notifications Appearing in Korean Literatur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Park, Jung-Hee*

This study considers how literary works responded to the ‘demolition of the poor’ according to city planning near the end of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what they meant. Confirmation and advancement of town planning in Gyeongseong in the middle and late 1930s led to the massive demolition of the poor, which went beyond the previous intermittent level, and became a social problem. The colonial authority notified shanty town inhabitants of ‘demolition orders’ in order to build ‘Great Gyeongseong’ by widening up the area and cleaning up the city. The inhabitants were forced out to be ‘la nuda vita’ by the demolition order, via deportation and exclusion. They resisted the ‘official demolition orders’ by submitting ‘petitions’ and by holding demonstrations, but they could not stop the demolition since they were ‘illegal occupants’.

Among literary works dealing with the life of the poor in a colonial city, it is not easy to identify works that either focus on or inquire into the ‘demolition’ problem. The central subject of the works tha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is the massive ‘demolition of the poor’ due to the urban-

* Research Professor, CTL, Seoul National University

ization of Gyeongseong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zation era. ‘Demolition order’ notifications appearing in literature at this time make a point beyond revealing the shanty town inhabitants’ lives in poverty or dealing with collective resistance. *Before This Spring is Over* (1937), which approaches the ‘demolition order’ situation of the shanty towns as an allegory situation of the intellectual’s ‘ideology demolition’, is particularly a representative work that demonstrates the literary developments that came out of the ‘demolition orders’ of this period. In addition, *Summer* (1940) symptomatically captures the violence which emerged out of the combina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as a logistics base’ and ‘demolition orders’, and *Foolish People* (1940) symbolizes exitlessness of ‘the naked life’ through the fall of characters who maximize personal gains using the displaced people’s anxiety.

This is the first study to have covered the demolition problem and literary work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ealing with this issue. It is a meaningful investiga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the demolition of colonial housing that could not be turned into a universal problem of colonial modernity or urbanization at the literary level. It is expected that interest in ‘demolition and literature’ will be increased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